

발명장려 운동의 뿌리

I. 日帝時代 發明獎勵運動 단체

1. 發明學會

1) 조직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장려 기관으로 1923년 6월 1일 李駿烈, 金容瓏, 崔毅昌, 金安基 씨가 주축이 되어 당국에 설립신청을 했으나 자산부족으로 거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1924년 8월 3일 金容瓏씨는 朝鮮製絲(株) 取締役工學士 劉金씨의 후원으로 40명의 발기인으로 발명학회 설립 준비회를 갖고, 같은해 10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理事長에 成洪錫씨, 理事에 金容瓏, 朴吉龍, 玄得榮씨를 선출했으나, 일반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회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어 1932년 6월 1일 제1회 이사회에서 金容瓏씨를 전임이사로 선임하고 발명장려운동에 주력하면서 발명풍토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에 朴吉龍씨를 선임하고, 李承學씨를 경리부 이사로 증선했다.

1933년 2월 23일에는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科學朝鮮」을 창간하기로 결의했다. 또 같은해 6월 20일에는 이사장에 李仁씨를 추대, 발명학회의 업무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발명학회는 그후 계속적인 발명장려운동에 전개하다가 1941년 12월 일제탄압에 의해 해체되었다.

2) 主要事業

① 「科學朝鮮」 발간

과학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지로서 1933년 6월 10일 창간되었다. 당시 박길용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우리 조선은 천혜의 자원이 풍부하여 온대지방에 위치하여 주거에는 무난했으며로苦心하여 연구할 자극을 받지 못해 고요하고 적절한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우리민족의 문명을 나물렸다.

과학조선은 발명과 과학에 관한 것을 모두 기사화함으로써 우리민족을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과학조선은 1년 정도 발간되다가 수차례의 정간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35년 발명학회가 과학지식보급회를 설립하면서, 이 단체의 기관지로 1944년까지 발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② 特許出願 안내

발명학회 범리부는 산업재산권제도의 교육과 함께 일반인의 특허출원을 적극 장려했다. 이미 당시에 가난한 발명가에게는 특허출원업무를 무료로 수입해주기도 했다.

③ 科學강연회

발명학회는 1933년 9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좌담회를 개최했다. 또 같은해 10월 26일에는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과학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그후 1935년 7월 5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과학 강연회는 경찰의 불허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때부터 일제는 발명장려 집회도 불허하기에 이르렀다.

④ 과학데이 실행회 조직

발명학회는 발명장려와 과학보급을 선도하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 지식열을 고취하고자 「과학데이」를 제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1934년 2월 28일 제1회 과학데이 실행회를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실행회에서는 의장에 金裨濟씨를 선출하고, 그 목적과 활동내용을 김용관씨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실행회는 과학주간을 설정하여 어린이와 주부에게 알맞은 과학지식을 강의하고, 환등, 활

동사진회 등을 개최하여 전국민에게 전파했다.

실행회는 1934년 3월 8일 제1회 위원회에서 4월 19일을 「과학데이」로 결정했다.

이로써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과학데이 실행회는 첫 「과학데이」 행사를 마치고 보다 실질적인 보급방법과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대중적인 과학지식 보급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과학지식보급을 위해 과학지식보급회를 설립했다.

2. 과학지식보급회

1) 조직

1934년 4월 19일 과학데이 기념행사 이후 과학지식보급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구체적인 설립방법이 과학데이 실행회에 위임되어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발기인은 발명학회 이사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때 「생활의 과학화」와 「과학의 생활화」라는 표어가 처음 등장했다.

과학지식보급회는 1934년 9월 5일 창립되었으며, 같은해 10월 30일 열린 첫 상무이사회에서 과학조선을 인수하여 발간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서 과학지식보급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지식을 보급하게 되었다.

과학지식보급회는 그후 강연회와 좌담회 등을 통해 이화학 교육을 일상생활에 일반화 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어린이와 주부에게까지 과학적인 이해와 실용 및 실습을 하였으며, 전국 학교에는 자연과학연구회를 조직하도록 했다.

한편, 과학지식보급회는 서울 뿐만 아니라, 개성·원산·신의주에도 설립되었다.

2) 주요사업

과학지식보급회는 그 활동범위가 전국적이고, 그 대상도 전국민이었기 때문에 주로 과학에 관한 도서 및 잡지를 발간하여, 이를 통한

제도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또한 대중에게 과학을 보급시킬 방안에 관한 조사활동도 추진했으며,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자연과학교육 연계, 과학데이 행사, 각종 강연회 및 좌담회, 실험회 및 전람회, 견학단 모집으로 견학, 과학 활동 사진의 촬영 및 상영, 과학제품의 채집, 제작판매 및 대리 등 과학에 관한 사업이면 모두 활동대상이 되었다.

「과학의 노래」도 과학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金岸曙작사 洪蘭坡작곡으로 제정되어 불리워지게 되었다.

3. 과학문명보급회

1925년 동경에 있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동경에서 조직되었다.

이들 유학생들은 동경에서는 일반적인 과학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서적을 발간해서 방학 때 귀국하여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민족의 독립운동에 부응하고 문명을 일깨우기 위해 농촌에 과학을 보급하는 등 일본에서 배운 지식을 전파했다.

이들은 1927년 여름방학에는 남쪽지방을, 겨울방학에는 북쪽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통해 민족의 과학과 독립의 눈을 뜨게했다.

4. 고려발명협회

1928년 12월 7일 서울 경운동 물산장려회관에서 발기인 총회가 개최됐다. 이때 선출된 이사는 明濟世, 周利會, 朴吉龍, 金容瓏씨 등 19명이었다.

고려발명협회는 일본인이 설립한 조선발명협회에서 조선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자 조선인만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발명협회는 그 설립의 취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1929년 1월 25일 경운동 천도교 기념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당시에는 과학지식보급회 등의 활동이 활발하여 1932년 12월 창립 4주년 기념 이후의 활동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5. 조선발명협회

일본인들이 조선에 상륙하고 특허제도 등이 일본제도가 실시되자 1924년 7월에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조선발명협회가 조선 총독부 내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일본인 변리사나 그들 국민들이 주로 가입되어 산업재산권제도의 정비를 위한 학문의 연구 및 조사, 발명 등 고안 및 출원의 보조, 발명가의 표창, 발명장려 강연회, 박람회 및 전람회 개최,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조선내의 일본인의 특허사무소 역할을 수행하거나, 주로 일본인 발명가의 권익보호에 주력했다.

1926년 9월에는 日文으로 된 「신발명」이라는 회보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新發明」誌는 1928년 1월에 제3권 1호가 발간된 것 이외는 기록이 없다.

6. 제국발명협회

1906년 5월에 일본에서 공업소유권협회로 설립되어, 1910년 10월에 그 명칭을 제국발명협회로 바꾼 후 1937년 6월 26일에 서울에 조선지부를 설립했다.

이 협회는 발명의 현상모집, 전람회 개최, 아동 창안품 전람회, 전람회 등의 출품 보조, 강연회 및 좌담회 개최, 발명에 관한 조사, 간행물 발행, 공보의 분류정리 및 열람소개설 등 발명장려를 위한 사업을 주로 했다.

7. 발명장려회

1941년 12월 일제 탄압으로 발명학회가 없어진 지 4년후 해방이 되어 1947년 10월 27일 설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은 吳植洙씨였고, 이사는 李駿烈씨의 19명이었다.

II. 일제시대의 특허출원

일제시대의 우리 민족에게는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에 대한 인식을 提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인 변리사가 조선에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일본인 발명가가 개발한 발명을 대리해주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발명품은 거의 없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변리사 자격 취득자 李仁씨는 발명학회의 이사장을 지내고 나중에는 과학지식보급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자격을 빌어 발명협회가 특허사무소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발명학회는 가난한 발명가에게는 무료로 출원수속을 봐주었다.

III. 맺는말

일제시대의 발명장려운동의 목적은 과학의 후진성을 극복하여 나아가서는 민족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이는 모두가 공업적 지식의 보급과 문맹퇴치 운동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과학사나 민족사에서도 그 운동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발명학회와 과학지식보급회 활동은 작게는 발명장려운동이며, 나아가서는 민족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장려운동의 측면에서 다소 미미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10만건 돌파의 근간으로 평가되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